

보리심 갖춰야 장애 없어

장될 수 있는 것이 내면의 마음이 지닌 공덕(空寂)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덕의 일체 종지가 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많은 허물이 있는 의식 상태가 항상 대 공덕의 성불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춤’은 객진이 없어 일체의 대상을 알아차리고 요망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대상을 요망하고 인지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는 대상을 인식하지만 현재 마음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모든 대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소지(所知) 즉 일체 대상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은 소지장(所知障)의 일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명을 없앤다면 우리에게 무시이래로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덕들은 기존에 있는 것이기에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님마의 <마하 무드라>에서는 ‘본래 갖추었으니 모두 부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장축’이라는 보리심은 존재 가능성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체 종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실질적으로 소지장을 없애는 대치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비로소 공성이 소지장을 없애게 됩니다.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큰 이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성의 지혜가 소지장을 끊어 일체 종지를 끊는 대치법이 될 때 진정한 성불로 가는 공덕의 원인이 됩니다. 출리심(出離心)을 내어 단순히 해탈을 원한다면 번뇌장(煩惱障)을 베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리심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지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공성의 지혜검은 소지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승의보리심과 진제보리심(眞諦菩提心)은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를 수행할 수록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견고해집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일체 중생의 구제를 원하는 보리심에 공성의 지혜는 힘이 돼 중생시킴으로써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의 방편은 쌍수(雙修)가 돼 병행되어야 합니다.

백조가 하늘을 날려면 두 날개를 펼쳐야 하듯 보살이 부처가 되려면 보리심과 스승의 힘과 공

성을 깨우친 지혜의 날개를 펼쳐 선한 공덕의 발원으로 공덕을 성취합니다. 월칭 보살은 두 가지의 장애인 번뇌장과 소지장을 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티데바는 <입행론>에서 “보리심의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보리심이 있다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를 아는 자 어찌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용수 보살의 <보리심적>에서 중관은 제법이 무자성임을 인정합니다.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해서 생겨난 것으로 의지해서 가설

에 보리심의 가르침이 가장 광범위 하게 나온 것이 <화엄경>입니다. 티베트에서는 <화엄경>이 6부 입니니다. 중국에는 80부가 있습니다. 티베트불교가 분할해야할 부분입니다.

보살은 대보리심의 마음을 일깨워서 자유롭게 못한 중생을 자유로 안내해야 합니다. ‘제법이 무야’이니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유정(有情)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지니는 진흙탕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련의 향기가 납니다. 자비의 행장을 꾸리십시오. 세상에는 다양한 방편이 존재합니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 처음에 중생들의 관심을 끌어 성숙시키고 공덕의 길로 향하게 합니다. 윤회에도 열반에서 머물지 않는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번뇌가 없는 고귀한 마음은 보물입니다. 보물은 광명을 수행해 무간도에서 끊어야 할 바를 끊은 해탈도의 상태로 고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보리심에 두어 희유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매진하여 보

현 보살의 행원을 따라 무지가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광명의 공성을 깨달은 상태를 이룰 때 지혜의 법신을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예찬하신 보리심을 찬탄합니다. 윤회의 바다와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이 양족존(兩足尊)께서 의지하신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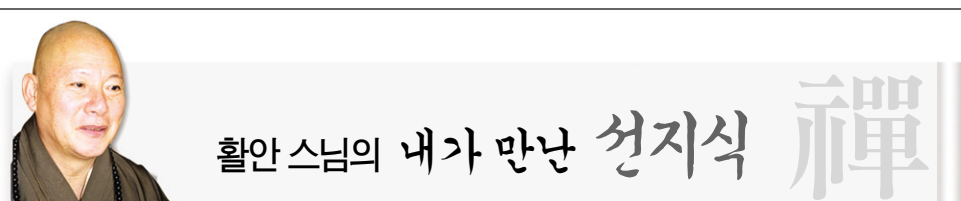
인도 다람살라/정리=가연숙 객원기자
사진=이상원 (실크로드 여행사 대표)

한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12연기 가운데 안팎을 나누어서 대상을 이야기 합니다. 내면의 연기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무명에서 비롯한 노사(老死)까지의 연기는 조건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꿈과 같습니다. 원인과 성품 그리고 결과물은 모두가 무자성입니다.

산티데바의 <입행론>에는 속제보리심(俗諦菩提心)이 자세히 규명돼 있습니다. 부처님 경

달라이 라마는 ...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제14대 계승자로, 본명은 텐진 가초다. 1935년 7월 6일 티베트의 동북부지역인 타크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두 살 때 제13대 달라이 라마인 툴렌 가초의 환생자로 인정받아 ‘왕위계승’ 교육을 받다, 1940년 정식으로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즉위했다.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하자,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정치적인 전권을 인수했다. 1959년 발생한 티베트 국민의 민중봉기에 대해 중국이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인도로 정치적 망명길에 올랐다. 1960년 달라이 라마는 고국 티베트와 가장 가까운 히말라야 산맥 아래 다람살라에 13만 명의 티베트 난민과 30여 개 국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망명정부를 건설했다. 그는 비폭력 평화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핵실험 금지와 세계 평화 및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막사이사이상과 스웨덴의 월렌베르히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으로부터 조국을 빼앗긴 대신, 전 인류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인류의 스승으로서 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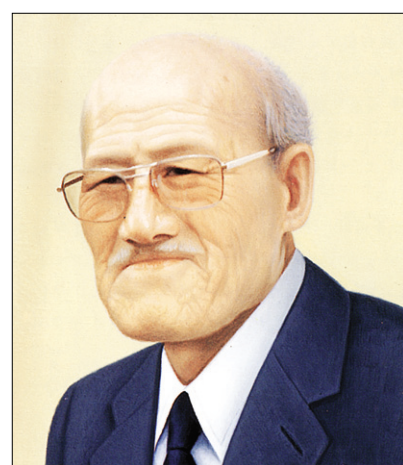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2. 한국의 유마 거사 장경호 회장

동국제강의 창업자 대원(大圓) 장경호(張敬浩, 1899~1975) 거사님은 ‘한국의 유마 거사’로 불려졌다. 1899년 부산 동래 초량에서 태어나 14세에 보성학교에 들어갔으나 17세에 동생의 죽음을 맞으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 때문에 통도사에 들어가 구하 스님으로부터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1920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일귀하처(一歸何處: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의 화두를 가지고 몸부림 치다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마니 공장, 수산물 도매시장, 정미소 등을 운영하며 철사와 뜻을 생산하는 ‘조선선재’를 만들어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완성하여 이 세상을 불국정토’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행히 후계자들을 잘 만나 세속적인 사업체인 동국철강이 국제적인 제강업체로 발전하였고, 장상문 회장이 대원정사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출세속적인 불교



에 입학시켜 수료하였다. 또 불교진흥원에서 매월 1000불씩을 도와주어서 몽골어학당을 개설하고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사 명상센터를 만들어 교민들의 정신건강과 전통적인 몽골 불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진실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남산 대원정사에서 설법하고 국수 먹으며 들었던 법문이 기억 속에 새롭다.

“나는 20대부터 폭풍처럼 밀려오는 불교의 고풍에 정신을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서적을 읽고, 불교의 요체를 파악하여 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구해볼 수 있는 불교서적을 간행, 보급해야 하겠다

30억 회사해 ‘불교진흥원’ 탄생... ‘곳곳이 법당’ 서원 이뤄

아들 상민이 불사를 계승하고, 넷째 아들 상일이 동국제강을 성장시키자 아버지 대원 거사는 전국 선방을 유행하면서 마음의 담금질을 끊임없이 하였다. 1967년 서울 견지동에 불서보급소를 설립하고, 1970년 남산에 대원정사를 짓고 시민선방을 개원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포교화를 언행일치로 실천하였다.

1975년 한국불교진흥을 위해 거금 30억원을 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헌납함으로써 문공부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얻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망의 첫발을 내디뎠다. 거사님은 언제나 대원정사에 나와서도 옛날 통도사에서 용성, 한암, 한운, 등산, 전강, 경봉 스님께 법문을 듣는 자세로 신진 불교화자들의 법문을 청하고 통도사 마하연 무위암, 범수원 선방에서 안거를 지내는 마음으로 시간을 꼭꼭 지키며 정진하였다. 목적은 오직 ‘자아를

사업 또한 잘 되어 다보수련원, 불교방송국, 대원복지재단을 설립해 장학, 복지, 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비록 일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속이 불(不二)라 세속적인 사업은 호국불교운동으로 중생구제의 한 방편이 되고, 출세속적인 사업은 정신력명으로 무명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밝은 빛을 제공하는 불사였다. 비록 세속에 몸을 담고 있으나 수행은 출가 수행자보다도 더 철저 하여 모든 불자의 귀감이 되었으니, 진실로 추모하고 존경해야 할 어른이다. 나는 남산의 대원정사에서 여러 차례 뵈고 거사님께서 직접 참림하여 운영하는 대원불교대학 강의도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몽골 불사를 하면서 아드님께서 몽골까지 오셔서 장학생을 선발해 주셔서 여섯 명을 동국대학교 대학원

고 생각한 것이 불서보급사였을 것이다. 그때는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책을 보고 나서 이것은 그분들의 체현이니 나도 한번도(道)를 통해보아야 되겠다 생각 하고 여러 선방을 돌면서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는데, 큰스님마다 돈이 없어 불사를 할 수 없다 하시므로 큰 원(願)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동국철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불교방송이 만들어진다면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니 집집이 법당이 되고, 곳곳에 부처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어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성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민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자빌딩 1505호)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 = 베트남 = 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1. 직장증명서 (갑근세 증명)
2. 자가, 전세 계약서
3. 장애 급수 증명
4. 정신 질 환자 제외
5. 심사 규정에 맞아야 함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추신분에 한하여 특별 우대 하여 모십니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